

라이프웨이 여론조사...미국 복음주의자 61% 트럼프 지지

미국 복음주의 성향의 유권자 대다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지만, 이 지지세가 인종별로는 차이를 보인다고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발표했다.

라이프웨이가 9월9일부터 23일까지 1,2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복음주의 유권자 중 전체 61%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계획이며, 29%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들은 73%가 트럼프를 지지한 반면, 18%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며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 대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각각 69%와 19%를 보였으며 기타 인종에서는 58% 대 32%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

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다니는 일반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각



미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조니 무어 목사 트위터

각 46% 대 45%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특히 백인 기독교인들은 59% 대 30%로 바이든 후보 대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흑인 기독교인들은 86% 대 9%로 바이든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히스패닉계 기독교인에서도 바이든 후보는 58%로, 트럼프 대통령(36%)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다른 인종들에서도 바이든(49%)이 트럼프(36%)도 앞서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를 지지

한 유권자들은 주요 이슈로 경제(82%), 국가 안보(67%), 이민(62%), 종교자유(49%), 낙태(44%), 대법관 후보(42%), 정부의 규모와 역할(40%)을 후보자를 결정하는 주요 이슈로 꼽았다. 반면, 바이든을 지지한 유권자 층은 코

로나19(75%), 인종적 불평등(68%), 개인적 기질(66%)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매겼다.

투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를 묻자, 유권자의 26%는 경제를 처음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 둔화(22%), 개인적 기질(15%) 순으로 답했다.

스콧 맥코넬 라이프웨이 리서치 상무는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하나의 쟁점만 추구하는 유권자가 아니다”며 “복음주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 중 89%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한 개 이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맥코넬은 또한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현재의 경기 불황과 팬데믹을 반영하지만,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10명 중 1명 이상이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제공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월터 리드 미 육군 보훈병원(Walter Reed National Military Medical Center)에서 치료를 받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 복귀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사흘 만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손을 흔드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또 퇴원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오후 6시 30분쯤 월터 리드를 떠날 예정으로 기분이 매우 좋다”며 “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복귀...“코로나19, 두려워 말라”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고 발표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양복을 입은 채 나타난 그는 병원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면서 엄지를 들어올렸다. 이후 준비된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백악관으로 이동한 후 오후 6시 45분쯤 관저로 들어갔다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의 손 콘리 박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상태가 매우 호전되고 있으며, 모든 퇴원 기준을 충족했다. 조기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입원 이후 2차례에 걸쳐 산소포화도 저하를 겪은 트럼프 대통령은 렘데시비르 2회, 스테로이드제인 텍사메타손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올린 트위터 글에서 “조만간 선거 캠페인에 돌아올 것이다. 가짜뉴스는 오직 가짜 여론조사만을 보여준다”며 선거 캠페인에 조기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콘리 박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마지막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정확히 언제 집무실에 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퇴원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집중 격리 치료가 필요하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대외 활동이 힘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케일리 매커내니 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일 호프 히스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연방대법관 지명식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측근들의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지파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2020 다민족 연합기도회, 미국 대선과 대한민국 위해 기도

오는 10월 16일(금) 저녁 7시 30분에 개최되는 2020 다민족 기도대회(대회장 한기홍 목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행위원회가 최종 리허설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실행위원회는 지난 5일, 은혜한인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과 예상되는 문제들을 점검했다.

특별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기도회는 미국을 위하여 주로 기도하고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지도자를 선출하는 미국의 선거를 위하여 기도할 예정이며,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

2020 다민족 기도대회 준비위원

회(위원장 강순영 목사, JAMA 대표)는 “지금은 남북 전쟁 이후 미국의 최대 위기가 될 정도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며 “우리 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회에 초청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행위원회는 이날 기도회를 갖고 올해 다민족 기도대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회가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미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2020년 다민족 기도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10월 13일(화) 오전 10시30분부터 리허설을 겸한 최종 준비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2020 다민족 기도대회는 현장에



2020 다민족 기도대회 실행위원회가 최종 리허설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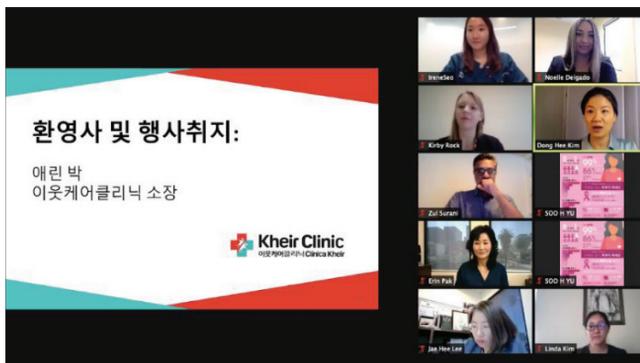
100명의 성도들만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미 전역에 중계된다.

기도회의 실행중계는 미주 복음 방송, 미주 CTS 방송(라디오와 유

튜브), 은혜한인교회 유튜브로 중계될 예정이다. 남가주 지역 많은 교회들이 중계되는 기도회를 각 교회 금요 기도회 프로그램으로 활용하

여 본 대회에 동참할 계획이다. 기도대회 문의는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 323)578-7933 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조기 발견시 생존율 99%, 유방암 검사 미루지 마세요”



시더스-사이나이 건강형평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

미주 한인들의 암 예방을 위한 검사를 복돋우기 위해 주류병원과 한인 교계 및 단체가 뭉쳤다.

10월 전미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과 시더스-사이나이 건강형평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일 한인 교계 및 단체, 언론을 초대해 ‘코로나 시대, 유방암 검사의 중요성’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한인들에게 유방암을 포함한 각종 암 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했다.

애린 박 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유방암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등 암 검사가 크게 감소했다. 최근 전미의학협회(JAMA)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유방암 진단건수도 52%나 줄었다”며 “이는 암에 걸린 환자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암 검사를 받는 여성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은 코로나19가 확산한다고 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정기검진, 정기검사를 받고 건강을 관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어 “암, 특히 유방암은 정기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에 이르고 완치 가능성도 크다”며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지킬 수 있다”며 “매년 내 자신에게, 가족에게 생일선물로 유방암 검사를 받게 했으면 한다”

고 제안했다.

연구소의 줄 수라니 커뮤니티 아웃리치 디렉터는 “한인들의 암 검사가 미국 전체보다 낮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인 단체, 종교기관 등과 협력해 최신 의료연구 정보와 암 예방법, 검사방법 등을 알리고 건강 불평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더스-사이나이 유방암치료센터의 아이린 최 임상간호사(RN, CN)는 “2019년 미국에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4만1760명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로 유방암 검사를 받는 사람이 줄면서 조기발견, 조기치료 시기를 놓쳐 2030년까지 유방암으로 5500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간호사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지 않다. 유방암 조기발견 생존율은 99%”라며 “유방암 검사를 미루지 말고 꼭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무료로 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웃케어클리닉 서비스 소개가 있었다. 또 유방암에 걸렸지만 극복한 서바이버가 본인의 경험을 나눴다.

문의: (213) 637-1081, 235-1215

비영리 단체 설립 및 세금 면제 무료 공개 강좌

10월 17일(토) 오전 10시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설립, 변경 및 IRS 세금 면제(Tax Exempt) 신청 관련 무료 공개 강좌가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오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사이트 (<http://www.churchhomepage.org>)에서 줌 화상 온라인 컨퍼런스로 진행된다.

이날 강좌는 비영리 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심이 있는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학교, 비영리단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이날 강의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인 제임스 구 교수가 나선다.

구 교수는 비영리 단체 설립 후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 변경 사항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IRS 와 주정부로부터 Tax Exempt 승인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강의할 예정이다.

구 교수는 교회행정 및 커뮤니티

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담당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제임스 구 교수

다. 또한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대표로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매년 2-3회에 걸쳐 커뮤니티를 위해서 비영리 단체 설립, 운영 및 회계에 관련된 무료 강의를 주관해왔다.

구 교수는 “비영리 단체는 주정부에 비영리법인 설립을 마친 후 IRS로부터 Tax Exempt 승인 받아야 도내이전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득세 신고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강의와 관련한 기본 자료는 등록 신청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714-525-0088(본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십자가 복음 증거의 삶, 생명 다하도록 달려가셨다”

고 임동선 목사 4주기 추모예배 열려

“고 임동선 목사님은 십자가의 역설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모든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삶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과 나누고 청빈의 삶을 사시다 하늘나라로 가신 진정한 축복받은 삶이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설립자 고 임동선 목사의 4주기 추모예배가 지난달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학생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테너 오위영 목사와 소프라노 신선미 교수의 특별찬양에 이어 월드미션대학교 부총장 신성목 교수가 기도하고 2대 총장인 송정명 목사가 설교했다.

생명보다 귀한 복음증거(사도행전 20장 17-24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송정명 목사는 “40년 가까이 곁에서 지켜본 고 임동선 목사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복음 증거자였다”며 “93

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생의 마지막을 남미지역 4개 지역 나라를 순회전도로 마감하실 정도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다”고 전했다.

송 목사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삶의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에 거침없었던 고 임동선 목사님을 따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과 나누자”고 덧붙였다.

추모예배에서는 고인이 40여 년 동안 브라질 도교, 독일, 중국, 인도, 케냐, 파라과이, 아프리카, 멕시코, 러시아 등 40여 개국을 순회하며 복음전파에 매진했던 모습이 영상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윤임상 학생처장은 “고 임동선 목사님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세상과 나누다 하나님 품으로 가셨던 마음의 위대한 성인이셨다”며 “죽는 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하늘나라로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다”고 회고했다.



월드미션대학교 설립자 고 임동선 목사

이날 추모예배는 송정명 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고 임동선 목사는 1923년 경기도 부천 출생으로 서울신학과와 숭실대 철학과에서 공부하고 1948년 서울 아현성결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를 시작으로, 한국 공군 초대 군종감(대령)을 지내며 젊은 시절을 군복음화에 헌신하다가 퇴임 후

유학을 결심하고 미국으로 왔다.

한인 이민 선교의 선구자로 불렸던 임 목사는 1970년 47세에 '선교·교육·봉사'라는 3대 가치를 내걸고 동양선교교회를 사택에서 개척해, 1990년 은퇴하기까지 동양선교교회를 LA를 대표하는 한인 이민교회로 성장시켰다. 1987년에는 전 세계 90여 개 교회와 기관을 지원하는 세

계복음선교연합회를 조직했으며, 1989년에는 월드미션대학교를 설립해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임동선 목사는 2016년 9월, 93세로 소천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남미 4개국 단기선교를 다녀올 정도로 선교에 그의 온 삶을 바쳤다.

김동욱 기자

신현철 목사 부친, 신석우 목사 별세



고 신석우 목사

바울교회 신현철 목사(전 OC 교협 부회장)의 부친 신석우 목사가 지난 10월 1일 소천했다. 향년 82세.

고 신석우 목사는 김포교회, 김단우리교회, 인천 복성교회 등지에서 목회하다가 도미해 이민교회와 선교활동에 전념했다.

2004년부터 도움선교회를 통해 미국 LA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시니어케어센터와 LA 미드윌서 헬스케어센터, 효사랑선교회의 시니어대학 등에 강연했다.

장남 신현모 목사 등 3형제를 목회자로 길러내 미국 시민단체인 '한마음봉사회'에서 '장한 아버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천국환송예배는 10월 7일(수) 오후 6시, 엘에이 한국장로사 파킹장에서 거행됐다.

덴버신학대학원 상담학부 기독교 상담학 교수 초빙



덴버신학대학원

초교과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인 덴버신학대학원에서 2021년 7월부터 상담학부에서 사역할 기독교 상담학 교수를 초빙한다.

초빙인원은 상담학 조교수 및 부교수 2명과 상담학 부교수/정교수 겸 박사과정 석좌 교수 1명이다. 조교수 및 부교수는 비정년 트랙

으로 승진이 가능하며 1년에 석사과정 8과목(24학점)을 담당하며 상담학 부교수/정교수 겸 박사과정 석좌 교수는 정년 트랙으로 1년에

석·박사 과정 6과목(18학점)을 가르친다.

지원자들은 상담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덴버신학대학원의 신앙 고백, 미션, 비전, 핵심 가치, 행동 규정에 동의하고 지원서와 이력서를 이메일 FacultySearch@denverseminary.edu 로 2020년 10월 31일까지 보내면 된다.

덴버신학대학원 웹사이트 www.denverseminary.edu 고용(Employment)섹션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덴버신학대학원 상담학부는 10명의 전임교수가 4가지 전공의 석사과정(Clinical Mental Health Counseling/CACREP accredited, School Counseling/pending CACREP review, Counseling Ministries, Chaplaincy)과 상담교육 및 지도 분야의 박사과정(PhD)을 개설하고 있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현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장신대 영예교수), 이영희교수(예수대 대표), 송정명목사(복음번역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유월리미주대표), 신정민목사(복음번역대 대표), 유관지목사(동일로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예 번역제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록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 GBM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 출판사 GBM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력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2020 다민족연합기도회(영상기도회) Multi-Ethnic Virtual Prayer Gathering

COVID 종식, 11월의 선거, 부흥과 회복

일시 : 2020년 10월 16일(금) 밤 7:30~9:30
현장 기도회 : 은혜한인교회
중계 : 미주복음방송, CTS America, 은혜한인교회GKC TV, YouTube : 2020 다민족연합기도회

지금부터 비상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Covid-19 극복을 위하여!
11월에 있는 각 선거를 위하여!
미국 건국정신인 청교도신앙 회복을 위하여!

대표대회장 : 한기홍 목사
준비위원장 : 강순영 목사(310-995-3936)
공동준비위원장 : 이성우 목사(213-675-6493)
사무총장 : 강태광 목사(323-578-7933)



■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3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77

“멕시코 민족 장로교 신학대학 교정에 서서(1)”

필자는 26년의 미주 이민 목회 사역을 마감하면서 지금 멕시코 멕시코칼리에 소재한 바하 캘리포니아 민족 장로교 신학대학 교정에 서 있다. 60세에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크기만 하다. 마음 한편에는 이미 오래전에 부르셨는데 깨닫지 못했거나 어쩌면 불순종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다.



이상훈 목사 주미전교회 담임

필자는 지난 20년간 운영이사로 섬기면서 이 선교지를 매년 한 두 차례 이상 단기선교팀과 함께 오기도 하고 졸업식을 참가하기 위해 교회 대표들과도 왔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 선교사로 파송받아 이곳에서 동역자들과 너무도 멋진 70여 명의 신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앞으로의 삶을 보낸다는 것에 대한 마음이 사뭇 다르다.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긴장과 결의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과는 이제는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허전함도 있다.

교회를 이끌 영적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교회음악을 앞으로 예배를 영적으로 더욱 효과 있게 인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2학년만 되어도 누구나 다 기타 연주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원숙하게 할 수 있다. 3, 4학년 학생들은 헨델의 메시아 곡을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다. 음악부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찬송곡들을 연주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아침식사가 7시에 있다. 예전 한국에서의 시골 교회 종소리를 기억하는가? 우리 학교는 그렇게 종 당번이 있어서 종을 쳐서 알린다. 식사 시간이라고 강의 시간이라고 강의 마치는 시간이라고 종 당번의 성향에 따라 매번의 종 소리가 다르다. 경쾌한 종소리, 요란한 종소리, 잔잔한 종소리, 가락이 있는 종소리 등 매번 다르게 들린다. 신학교 수업은 3 클래스 혹은 4 클래스에서 각기 3교시씩 한다. 오전 9시-11시, 오후 1시-3시, 3시 30분-5시 30분씩 진행된다. 매일 정오에는 강당에서 경건회 예배를 드린다. 학생회 임원들이 담당자들을 배정한다. 6명의 2, 3학년으로 구성된 임원진들은 정말로 성실하다. 식사시간 식사 당번도 정해준다. 매일 청소 구역도 정해준다. 학생들은 즐겁게 순종한다. 그들에게 큰소리가 없다. 그들을 보며 멕시코의 미래를 보면 참 밝다. 기대된다. 이미 300명이 넘는 저들의 선배들이 멕시코 전역으로 가서 사역하는 것을 보아서도 밝지만 그들의 좋은 귀감을 후배들이 계속 이어받아 내려가는 신학교의 경건 훈련의 흐름이 이제는 명문 전통이 되어 있어 보인다. 얼마 전 우연히 이곳을 들렀던 미주에서 목회하는 몇 분 목사님들이 자신들도 남미 신학교 사역지를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안정되게 일사불란하게 편안하고 경건하게 운영되는 학교를 보지 못했었다고 경탄했던 모습들이 떠오른다.(계속)

이 캠퍼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5시 30분부터 개인 묵상을 가지며 하루를 시작한다. 오전 6시 강당에 같이 모여서 새벽 경건 기도회를 갖는다. 인도자는 주로 3, 4학년들이 한다. 이번 학기도 신입생이 17명 들어왔다. 경건 훈련은 이렇게 상급 학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학생들 전체를 순번을 두어 남, 여학생이 기도회를 시작하는 대표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신학교를 보호해 주십사, 지도하는 교수, 강사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가족들, 스텝들을 위해 학생들은 깊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기도한다. 후에 찬양 인도자가 나와 찬양을 인도한다. 그리고 인도자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경건회를 마무리한다. 곧이어 여러 기도 제목을 정해진 학생이 이어서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도 들어간다.

필자는 개인기도 때에 기도하는 이들을 돕고자 피아노 연주자가 반주하는 찬양에 참으로 놀랍게 은혜를 받는다. 매일 다른 학생이 반주를 맡는다. 찬양인도도 매일 다른 학생이 인도한다. 그렇다. 우리 신학교는 모든 학생이 피아노와 기타 및 드럼 등의 연주를 배우게 된다. 신학교 초기부터 설립자인 임원선 선교사 부부의 계획이었다. 이 학교에서 배출된 사역자들은 일선 교회 현장에서

‘신앙인과 인문학’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서양 문화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브라이즘(Hebraism)은 구약을 바탕으로 형성된 히브리 정신을 말합니다. 고대 유대교와 기독교가 주장하는 신앙과 문화적 전통을 포괄하는 문화입니다. 조금 더 풀어 보면 헤브라이즘은 유일신사상을 신봉하는 신앙 중심적이고 내세지향적인 도덕과 윤리위에 세워진 문화입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를 의미합니다. ‘헬라’는 원래 반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반도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신들을 헬렌(Hellen)으로 불렀습니다. 헬레니즘은 좁게는 그리스 절정기에 유럽과 중동 그리고 인도지역을 정복하던 시대의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광의의 헬라이즘은 헬라문화를 전수받았던 로마시대의 문화도 포함 시킵니다. 로마시대의 기독교권과 로마시대에서는 코이네 헬라어가 널리 통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서양의 고전을 통한 인문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문화권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충돌과 조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 두 문화권의 갈등과 융합을 통해 서양 문화가 발전해 왔습니다. 신약 성경은 헤브라이즘 문화의 정수이지만 신약 성경에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이 종종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들 중에 헬레니즘의 산물이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도시들이 헬레니즘 문화의 산물입니다.

예컨대 데카폴리스는 알렉산더 대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만든 도시입니다. 데카폴리스는 열 개(데카)의 도시(폴리스)를 의미합니다. 이 곳은 실제로 알렉산더에 의해 식민지화 되었고, BC 63년 폼페이우스 장군에 협력하면서 자치와 면세의 특권을 누렸던 도시연맹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귀신들린 여인이 있었던 데카폴리스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에서 예수님은 데카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밝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디베라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는 도시입니다.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막6장의 헤롯)가 로마의 새로운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하여 갈릴리 호수 서편에 건설한 도시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위하여 유대인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충돌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디베라는 헬레니즘을 대표합니다. 그 헬레니즘의 문화가 깃든 디베라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은 헤브라이즘의 정수입니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면 헤브라이즘은 기독교(신약)적이고 헬레니즘은 세속(비기독교)적이고 사탄의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이나 교부 신학 시대를 거치면서 헬레니즘이 신학의 도구로 봉사합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 사유와 논리가 기독교 신학의 논리적 힘줄이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교육받은 다소(Tarsus)는 당시 헬레니즘을 꽃피운 핵심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헬라시대 3대 교육도시는 아테네(스승이 많았던 도시), 알렉산드리아(도서관등 교육 시설이 좋았던 도시), 그리고 다소(중산층들의 교육열이 높았던 도시)입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양질의 헬레니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육과 경험을 가진 바울이 헬레니즘 문화권 도시들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들을 세운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들이나 교회가 세워졌던 소아시아의 도시들은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 있었

던 도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라 문화를 복음전도의 통로로 활용했습니다. 또 그는 복음에 헬라문화를 옷 입혀서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이고 유능한 전도사였습니다. 바울의 선교가 효과적일 수 있었던 도시들은 도시화 문화를 지향했던 헬레니즘의 산물이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바라본 아레오바고 언덕. 아레오파고스(그리스어: Ἀρειος Πάγος)는 고대 아테네의 정치 기구이다. 아레이오스 파고스(고대 그리스어: Ἀρειος Πάγος)라는 말은 ‘아레스 신의 바위’라는 의미이다. 고대 로마의 원로원과 같은 역할을 했으며, 의도적 살인에 대한 재판 법정으로서의 기능도 했다. ©wikipedia

신약 성경에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가장 강렬하게 충돌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테네 선교장면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Areopagus)광장에서 설교하는 장면은 압권입니다. 아테네는 헬레니즘의 심장입니다. 당시 헤브라이즘의 핵심인물인 바울이 아테네의 심장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합니다. 아테네 곁에서 있던 어느 신상의 새겨진 말(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an Unknown God)을 언급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짧은 설교에서 헬레니즘 사상 특히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를 수 차례 인용합니다. 당시 웅변술과 수사학에 능했던 사도 바울은 청중 분석에 능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청중인 아테네 시민들이 듣고 말하는 용어와 경구, 문화를 활용해서 자신의 헤브라이즘을 전합니다. 요컨대 사도바울은 철저하게 헬레니즘적인 접근으로 헤브라이즘의 결론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경이 헤브라이즘의 기동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소홀히 하는 인문학은 없습니다. 인문학은 성경의 진리를 밝혀 줍니다. 인문학의 대가 중에 무신론자는 거의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 탁월한 신학자,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들은 한결같이 인문학에 정통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때 더 분명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김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섬김!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나라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희망과 기쁨을 나누는 코어와 함께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김준곤 목사와 빌브라이트 박사 (CCC 제공)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21) 김준곤 목사와 민족복음화 운동

1907년 전후로 원산부흥, 평양 대부흥, 백만 구령운동을 통해 한국 땅에 대부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1970년부터 20년 동안 한국 땅에 다시 대 부흥을 허락하신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부흥운동의 중심 인물로 사용하신 분이 김준곤 목사였다.

하나님께서 김준곤 목사를 통해서 한국대학생선교회(Korea CCC)를 설립하여 수십만 명의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양육하여 한국 교계와 학계와 사회를 이끄는 수많은 인재들을 키우게 하셨고, 민족복음화운동을 선포하고 수 천회의 크고 작은 전도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도자들을 준비시켰다.

1974년에는 Explo'74라는 이름으로 30여 만 명을 여의도로 모아 합숙 전도훈련을 시킴으로 한국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변화시켜 교회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80년에는 80세계복음화대회를 열어 이 기간에 10만 명 이상이 해외선교에 헌신함으로써 선교한국의 기초를 마련했고 그 결과 한국은 오늘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

김준곤 목사(1925- 2009)의 성장 배경과 CCC운동의 시작

김준곤 목사는 1925년 전남 신안군 지도라는 섬에서 8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문준경 전도사를 통해 신앙적 감화와 순교적 신앙을 배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교를 1948년에 졸업하고 1951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53년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송일중고등학교 교목과 교장을 역임했다.

6.25 전쟁 기간 1950년 10월에 아버지와 아내가 공산폭도에 의해 죽임 당하는 극한의 슬픔을 경험한다. 극한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뜨겁게 만나주시기로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고 부친과 아내를 죽였던 공산 폭도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전도했다. 6.25의 참상을 겪으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꿈을 주심으로 이때부터 이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

1957년에 미국의 플러신학교로 공부하러 갔다가 CCC를 설립한 Bill Bright 박사를 만나 자신의 간증을 나눌 기회를 가졌는데 빌 브라이언트 박사는 함께 대학생선교운동을 하자고 제안하고 곧바로 한국의 CCC를 시작하라는 권유를 받고 1958년에 한국CCC 대표로 파송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국CCC는 미국 다음으로 CCC가 시작된 나라가 되었고 CCC는 그 후로 CCC International이 된다.

한국에 돌아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캠퍼스를 방문하여 대학생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의 예수사랑, 나라사랑의 설교와 매년 열렸던 입석수련회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변화를 체험한다.

한국CCC는 계속 확장되어 매년 주요도시에서 Staff들을 파송함으로써 전국 주요도시들과 전국의 주요대학들로 확산되어가 현재는 국내에는 41개 도시, 300여 대학에 850명의 전임간사를 파송해 2만 여명의 대학생들이 양육 받고 있고, 해외에 460명의 staff들을 주로 대학에 파송함으로써 해외선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민족복음화의 꿈과 다양한 사역들

재정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서 1962년 겨울 몇 명의 Staff들과 눈 덮인 삼각산에서 "CCC사역을 계속 할 것인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민족복음화의 환상을 주시며 어렵지만 CCC운동을 계속 하라는 격려를 주신다. 이후로 김준곤 목사를 통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기 시작하신다.

1. 대통령 조찬기도회(후에 국가조찬기도회로 바뀜)

1966년에 국가지도자들의 전도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목적으로 김준곤 목사가 '국가조찬기도회'를 조선호텔에서 준비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미국의 기독교지도자들, 각국 대사들, 교계지도자들 등 276명이 참석하여 시작했다.

대통령조찬기도회(국가조찬기도회) 이후에 도시사조찬기도회, 군수

조찬기도회, 면장조찬기도회의 이름으로 전국에서 열려 나라의 각급 지도자들이 년 초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함으로 이를 통해 온 나라에 축복의 문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2. CCC' 나사렛 형제들' 주도 민족복음화 헌신

1968년에는 CCC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민족복음화의 일선에서 헌신할 제3의 집단으로 '나사렛 형제들'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민족복음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앞장서 헌신하게 했다.

3. 전군 신자화 운동 시작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대 안에 좌파 침투에 대한 우려를 갖고 군인들의 사상무장에 대해 자문을 구하시자 전군 신자화 운동이 강한 정신력을 가진 군대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제안함으로써 전군 신자화 운동이 시작되었고, 전군신자화 운동의 실천사항으로 모든 장교들과 군인들이 한가지 종교를 갖도록 정부 방침으로 하달되었다. 이때 대부분의 군인들이 자신의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함으로써 군 복음화가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다.

4. 민족복음화운동 선언

1970년 12월 31일 재야의 종소리와 함께 기독교방송을 통해 김준곤 목사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구호와 함께 CCC를 중심으로 민족복음화운동에의 헌신을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전국 각처에서 전도훈련과 전도대회를 시작함으로써 민족복음화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타오르게 된다.

5. 일 만 명 민족복음화 요원훈련

1971년 여름에 대전충무체육관과 인근의 학교들을 빌려 5일 동안 전국에서 참가한 1만 명을 민족복음화 요원, 전도요원으로 훈련시켜 마지막 날에 대전 시내로 내 보냄으로 수 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을 전국교회로 보내어 전도요원으로 활동하게 했다.

6. 춘천 성시화 운동

한 도시를 선정해서 스위스의 네바처럼 복음으로 경건한 모범도시를 만들려는 전략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을 선정하여 춘천지역 교계

지도자들과 연합으로 1972년 여름에 춘천체육관에 모여 5일간 성시화대회를 개최했다.

7. Explo' 74 대회

당시 한국 기독교인이 270만-300만 상황에서 1974년 8월13-18일 기간에 하나님은 CCC를 통해 대규모의 민족복음화대회를 준비하게 하셨다. 전국에서 32만 명이 등록하여 여의도광장과 인근 학교들을 빌려 낮에는 학교에서 전도와 민족복음화 요원훈련을 받았고, 밤에는 여의도 광장에 매일 밤 100만 명이 참석 모여 민족복음화 대회를, 심야에는 부흥사들 주도로 매일 밤 30만 명씩 모여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Explo'74 대회는 한국교회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8. 나라를 위한 집단 40일 금식기도

한국에 더욱 전도의 문이 열리고 민족복음화 운동을 위한 더 높은 헌신을 위해서 김준곤 목사와 20명의 CCC Staff들이 1976년 12월에 40일간 집단으로 40일 금식기도를 드렸다. 이 기간 동안에 학생 순장들 700명이 서울 본부에 보여 7일간 금식기도에 동참했다. 이후로 매년 1월 1-3일 기간에 전국 각 도시 별로 학생들이 원단금식기도회를 실시해 오고 나사렛형제들은 서울 본부에서 연합으로 원단금식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40일 집단 금식기도회 이후에 CCC의 대학사역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전성기를 맞게 되었고 CCC 전국대학생수련회는 1만-2만 명씩 참가하게 되었다.

민족복음화 넘어 세계복음화로의 헌신

1. 80세계복음화대성회

민족복음화운동과 함께 폭발적인 전도운동으로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었으나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숫자는 매우 초라했다. 선교운동의 기폭제 마련을 위해 기도도 준비했던 80세계복음화대회는 1980년 8월에 여의도광장에서 모였는데 참가규모에 있어서 Explo'74 보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모였고, 마지막 날 밤 선교 헌신의 밤에 김준곤 목사를 통한 도전에 10만 명이 이상이 해외선교를 위해 생애를 드리겠다고 헌신했고, 선교를 위해 후원하거나 기도

하겠다는 헌신에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일어섰다.

2. 마닐라에 3000명 단기선교팀 파송

한국 CCC는 2000년 7월과 8월에 마닐라 뉴라이프 2000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3000명의 대학생들과 나사렛형제들을 단기선교팀으로 파송했다. 그 이후 한국 CCC는 해마다 10여 개 나라에 수 천명씩 단기선교팀을 파송함으로써 해외선교에 도전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GCOWE 세계선교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섬김

2000년 까지 전교회가 전 복음화를 위한 전략모임이 1995년 5월17일-26일 기간에 기독교21세기운동본부의 주최로 서울 햇빛센터에서 열렸다. 세계 217개국에서 4700명이 등록하여 참석한 세계복음화 전략모임을 김준곤 목사가 준비위원장을 맡아 섬겼다. 마지막 날에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75,000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대학생통일봉사단 입단 헌신서약식이 열렸다. 75,000명의 대학생통일봉사단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북한선교와 세계선교에 헌신했다. 이날 GECOWE에 참석한 세계 각국에서 온 4700명의 지도자들도 자리를 함께해 통일봉사단의 헌신을 지켜보았다.

주님, 우리의 고국 한국 땅에 김준곤 목사님 같은 리더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1970년-1990년에 일어났던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소서.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강 순 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준곤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준곤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배럿 신임 대법관 지명에... 남침례교 지도자들 “대환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신임 대법관에 에이미 코니 배럿 시카고 제7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교단(SBC) 지도자들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남침례교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 러셀 무어 위원장은 “배럿 판사의 지적 능력과 수 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이 나라의 최고 법원에서 일할 자격이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나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게 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니 플로이드 남침례교 집행위원장은 배럿 판사에 대해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법조인 중



러셀 무어 목사 ©미국 윤리와공공정책센터

한 명”이라고 묘사했다.

플로이드는 또 “그녀는 신앙이 깊은 여성이자 헌신적인 아내, 그리고 일곱 자녀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다.

차기 대법관으로 지명될 뿐 아니라 미국 상원에서 인준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명 당일 백악

관 로즈가든에서 배럿 판사에 대해 “탁월한 업적과 우뚝 솟은 지성, 헌법에 확고한 충성심을 가진 여성”이라고 평가하며 그녀가 “헌법 전문에 근거하여 사건을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럿은 앞서 대통령의 소개를 이어 받으며 “그의 사법적 철학이 나와 같다”면서 “판사는 법률을 서면대로 적용해야 한다. 판사들은 정책 입안자가 아니며,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책적 견해도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반면, 진보주의 진영은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던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보수가 결정적인 우위를 가져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그녀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 동성애

와 낙태를 비롯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그녀의 기독교적 신념이 주요 결정에 작용할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내달 12일 시작될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무어 위원장은 “이미 양극화된 국가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확인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진정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배럿 판사가 다원주의적 공화국(pluralistic republic)에서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강요하는 신정주의자(theocrat)가 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미 법무부, ‘실내 예배 제한’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경고 서한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 ©페이스북 캡처

미 법무부는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한 번에 한 신도’에게만 교회 출입을 허락한 샌프란시스코 시의 제한 명령은 “헌법과 종교의 자유라는 국가 최고의 전통에 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25일 오후 성명을 통해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에게 “체육관, 문신 시술소, 미용실, 마사지사, 탁아소를 포함한 다른 실내 환경에서 여러 명의 방문자를 허용한 반면, 예배 장소에만 회중 1명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에릭 드라이밴드 연방 인권부 법무차장과 북부 캘리포니아 변호사인 데이비드 앤더슨은 제한령이 “샌프란시스코의 다른 유사한 실내 활동에 제공되는 조치와 달리, 국가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전통적

이해와 완전히 상충되며,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라이밴드와 앤더슨은 또 “정부는 정부의 공중 보건 이익에 동등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비종교적 모임에 비해 종교 모임을 차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데니스 에레라 샌프란시스코시 검사는 서한에 대해 “부주의한 법적 위협을 조래한다”면서 샌프란시스코시는 “캘리포니아 주의 허용범위를 뒤따라 가면서 (...) 안전한 속도로 개방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서한에 명시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집회를 조만간 교회에 허용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에레라는 샌프란시스코시가 이달 30일부터는 수용 가능 인원의 25%, 최대 50명까지 실내 예배를

허용하고, 야외 예배는 안전 지침에 따라 최대 100명까지로 확대할 방침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20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시청에 “미사 해방 (Free the Mass)”을 요구하는 카톨릭 시위자들이 성찬 행렬을 진행하며 세인트 메리 성당까지 행진했다.

살바도레 코딜론 샌프란시스코 대주교는 이날 야외 미사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차별 받는 것에 매우 지쳐 있다”고 말했다.

코딜론 대주교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시는 성당에 야외 예배는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실내 출입은 한 번에 한 명씩만 기도를 허용했으며, 실내 예배는 금지해왔다.

시위에 참여한 성 베드로 교구 일원인 길레르모 콜라도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내 권리가 짓밟혔다”면서 “우리는 법 아래 평등하지만 (...) 그들은 우리를 비필수적인 존재이자, 해산시킬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자유 법률회사인 ‘벤킷(Becke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타 주에 비해 코로나바이러스 제한에 있어 교회 예배가 “금지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6개 주 중 하나이며, 그 외에도 네바다, 버지니아, 뉴저지, 코네티컷, 메인 주가 꼽힌다.

김유진 기자

폼페이오 장관 “종교 탄압 심각... 북한, 중국 기독교 박해에 목소리 높여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북한, 이라크, 쿠바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30일 주교황청 미국 대사관이 주최한 ‘외교를 통해 국제 종교자유를 수호하고 증진하는 심포지엄’에서 연설하며 이 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라크, 북한, 쿠바의 기독교 형제 자매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베를린에서 나치의 유대인 탄압에 반대하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했다가 목숨을 잃은 베른하르트 리히텐베르크 신부의 사연을 전하며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다른 공산주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를 궁극적인 도덕적 권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종교 탄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VOA는 “폼페이오 장관은 종교 자유를 비롯해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 외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며 “또 미국의 선조들은 종교 자유를 건국의 핵심 이념이자 절대적인 인권으로 간주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미 국무부 제공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종교 활동을 여전히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1년 이후 계속해서 미국이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 있다고 한다. 미 정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한다.

VOA는 미국 최대의 국제방송국으로, 미국 국제방송처(U.S. Agency for Global Media) 산하 기관이며 미국 국민의 세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편집의 독립성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한다.

김진영 기자

www.marhlaw.com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은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녀는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辯護
변호

實力
실력

精誠
정성

責任
책임

信賴
신뢰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 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별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언제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겨림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진본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美 법무부 “100명 이상 야외 예배 금지한 행정명령은 부당”



캐피톨힐 침례교회 ©위키피디아

미 법무부는 캐피톨힐 침례교회(Capitol Hill Baptist Church, CHBC)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100명 이상의 야외 예배를 금지한 워싱턴 D.C. 무리엘 바우저(Murriel Bowser) 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4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워싱턴 시(市)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위반했다”면서 “지난주 연방 법원에 교인 수 850여 명의 이 침례교회를 지지하는 ‘이해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헌법 및 연방법은 워싱턴 D.C.가 적어도 ‘평화적 시위’와 같은 다른 형태의 야외 활동을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캐피톨힐 침례교회의 야외 예배를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릭 드레이밴드(Eric Dreilband) 법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종교 자유 행사권과 시위권은 모두 제1차 수정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우리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이다. (그러나) 워싱턴 D.C.는 불행히도 이 같은 권리를 무시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를 수호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윌리엄 P. 바(William P. Barr) 법무장관은 지난 4월 27일 발표된 성명에서 드레이밴드 법무부 차관보와 미시간 동부지

방검찰청 매튜 슈나이더(Matthew Schneider) 검사에게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시민의 자유가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마크 도버(Mark Dover) 목사가 이끄는 캐피톨힐침례교회는 최근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와 윌머 헤일 법률사무소(WilmerHale, LLP) 등을 통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교회에게 전체 교인들이 매주 드리는 대면 예배는 대체할 수 없는 종교적 신념”이라며 “교회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으며, 주일 아침 예배도 여러 번 드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회 측은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3월 바우저 시장은 캐피톨힐침례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이 실내의 대면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마스크 착용 및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도 100명 이상의 대면 예배 또는 건물 수용 인원의 50%(둘 중 더 적은 쪽) 이상인 경우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캐피톨힐침례교회 저스틴 소크(Justin Sok) 목사는 “교회는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며, (예배는) 행사가 아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동체로서, 정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진 기자

미 목회자 75%

“대선이 성도들에게 영향 끼칠 것” 우려



©Pixabay

복음주의 여론 조사기관인 바르나 그룹은 최근 미국 목회자 4명 중 3명은 대통령 선거와 그 여파가 자신들의 교회 성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발표했다.

바르나는 ‘처치 퍼스 Church Pulse)와 공동으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475명의 미 개신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 대통령 선거가 교회에 미칠 영향을 얼마나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고, 41%는 ‘일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대답했다. 반면 26%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대선에 영향을 대해 인식하면서도, 개교회가 정치 운동 기간에 초래될 교회 내부 분열을 조정하는 데에는 자신감을 보였다.

‘선거가 성도들을 분열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목회자의 65%는 ‘반대’했으며, 25%는 ‘일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10%는 ‘강력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선거 철까지 교회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목회자의 87%가 ‘물론 그렇다’ 혹은 ‘어느 정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처치 퍼스’는 지난 3월 코로나 대유행

당시부터 미국 개신교 교회들의 동향을 추적하는 매주마다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18주차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와 그에 따른 교회의 대응에 관해 물었다.

한편, 지난 8월 미국 하나님의 총회 더 더 클레이 총감독은 정치적 분열을 퇴치하기 위해 약 1만30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목회 서신을 전달했다.

클레이는 편지에서 “2020년의 양극화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고 심지어 일상적인 결정으로까지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통합을 가져오는 것은 성령이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자멸로 이어질 분열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스며들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애리조나 대학 국립시민담론연구소(NICD) 이사인 테오 브라운은 작년 CP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기독교 교파들은 각자의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개개인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개개인은 존엄과 존경을 받으며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면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사회적 정중함을 회복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침례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우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0.1만2세대를 섬기며, 이만2세대를 치료하여, 신교령을 순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금요일예배 오전 7:30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교차로 북쪽쪽 옆에)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리쌍예배(분당) 저녁 8:30
금요예배(분당)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리쌍예배(분당) (소매별)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디오는 오후 6:3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신.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모이기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학교 주일 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선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30(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삶이었고 자유와 회복이 있었어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영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갈라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영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30(토)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30(토)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6: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가톨릭) 오후 7:00(금)
중보기도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12:45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여 내 길에 빛이오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배 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성경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리제물 335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종고등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및 유종고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 (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s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웅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中 ‘기독교 믿으면 재정적 처벌·토지 몰수’ 경고”



중국 그리스도인 연합회가 SNS에 공유한 비디오 영상. 교회 옥상에서 크레인으로 십자가를 철거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중국 공산당 당국이 기독교로 개종한 주민들에게 재정적 처벌을 가하거나 토지를 몰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박해감시단체인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는 “중국-미얀마 국경과 가까운 남서부 윈난성 잉장(Yingjiang) 카운티에 있는 황페이(Huang Fei) 마을에 보낸 통지서에서 기독교는 ‘악한 종교’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다른 여러 마을에서도 통지나 직접 대면으로 기독교인들이 비슷한 위협을 받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CSW에 따르면 통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마을의 규칙을 위반하는 일이며 299파운드(약 135kg)가 넘는 돼지를 압수당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재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처벌은 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금액의 벌금이라고 CSW는 밝혔다.

CSW의 한 소식통은 “이 마을뿐만 아니라 루이리(Ruili)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다른 많은 다이(Dai) 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규칙은 기록되어 있고 일부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같은 규정은 ‘황페이 마을 규정’에 대한 보충’이라는 제목으로 마을위원회에 의해 통과되었다”라며 “다이 지역의 전통에 따라 윤리적 원칙과 종교적 금기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차이나 크리스천 데일리(China Christian Daily)는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일반적으로 범죄자는 특정 날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공물(살아있는 돼지)을 들고 자신을 큰 소리로 비난한다”면서 “산책을 마친 후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공물 음식을 요리해야 한다. 가해지는 총 비용을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 이 처벌은 매우 위협적이며 존엄성과 재피해 측면에서 가장 엄격하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중국 공산당은 지역 사회와 마을 지도자들에게 종교 탄압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이는 중국 시민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수년간 지하 교회와 기독교 활동가들을 단속 해 왔다. 지난 2015년에는 1천 개가 넘는 십자가가 철거됐으며 저장성 전역에서 교회 건물 전체가 파괴됐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당시, 폐쇄령이 내려진 기간에도 십자가를 파괴하고 교회를 철거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캠페인을 계속해왔다.

중국에는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적어도 절반은 등록되지 않거나 불법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캔터베리 대주교, “코로나 변화가 영국교회 갱신 이끌 것”



저스틴 웰비(Justin Welby) 캔터베리 대주교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24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영국 교회 제너럴 시노드(총회)’에서 영국의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변화된 기관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웰비 주교는 이날 특별좌담에서 ‘전례 없는 전국 교회의 폐쇄’와 ‘가상 예배로의 전환’은 영구적인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 변화가 긍정적인 것이며, 영국 교회 내에 갱신을 이끌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이때부터 우리는 영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다”면서 “80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교회가 문을 닫은 현실”과 “처음으로 가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는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때에 우리는 갱신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교회가 폐쇄의 충격에서 벗어나 새롭게 갱신되고 변화된 교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웰비 주교는 팬데믹 동안에 “교회야말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먹고 있고, 이웃사랑 실천에 나서고 있

는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영웅적인 노력을 통해 고립된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새롭고 특이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코트렐 요크 대주교는 설교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남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나열했다. 특히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지 못한 채 혼자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몹시 유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트렐 주교는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알게 됐고,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하며 간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배우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교회가 진정 어떤 의미인지 매우 매우 고통스럽게 배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런던에서 소집된 총회는 전염병 발생시 회원 단체들이 원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한국교회 비대면 예배 50일... 코로나가 바꾼 교회



사랑의교회가 최근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모습. 설교자 뒤로 대형 스크린에 성도들의 얼굴이 보인다.©사랑의교회

온라인, 점차 자리잡아... 미래 어떻게 될까

정부가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이후, 지금까지 약 50일이 지나고 있다. 그 사이 정부는 현장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을, 예배당의 좌석이 300석 이상일 경우 50명 미만(300석 미만은 20명 이내)까지 허용했지만 비대면 예배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원칙을 언제 해제할 지 아직 기약도 없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장 뚜렷이 나타난 현상은 두말 할 것 없이 '온라인 시스템'의 보급이다. 물론 규모가 작은 교회의 경우 이조차 여의치 않지만, 올해 초 코로나 사태가 막 터지기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지금은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온라인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다.

온라인의 보급은 선교에 있어 또 다른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스마트폰과 SNS의 사용이 거의 일상화된 현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해 '온라인'의 활용은 그야말로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 교회들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런 온라인 선교 시대를 직면하게 만들었고, 한국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미 '웹처치'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 새들백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빈 리 목사는 "건강상의 이유, 삶의 큰 변화, 개인 신앙보호, 지역적 이유라는 네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온라인 교회를 찾고 있고 온라인 사역의 도움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있다"며 "건강하고, 안정되고, 가까이에 있는 영혼들에게만 집중하는 교회에서 아프고, 연약하고, 멀리 있는 영혼들에게 교회가 되어준다면 그 교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온라인 사역은 그렇게 하기에 적합한 도구이고 오프라인 사역에 보완이 되는 사역"이라고 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다.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면서 교인들의 신

앙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 교회 장로는 "매주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는 예배에 접속하는 숫자를 보면, 평소 주일예배 출석 교인의 5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 교회의 현장예배가 가능해지더라도 예배당에 이전처럼 교인들이 나올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 전통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였다.

그는 "비대면 예배도 예배고, 온라인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지만 아무래도 현장에 배에 비해 설교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가짐도 흐트러지기 쉽다. 예배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도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또 온라인 환경이 작은 교회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유명 목회자에게 더 쏠리는, 소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가속화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인들에게 '출석 교회' 개념이 흐려지면, 평소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목회자의 설교를 찾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처럼 '비대면 예배'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공통적인 전망은 어쨌든 코로나 이후 교회의 목회와 선교 환경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최덕석 박사(브니엘신학교 총장, 유유미션-브레드유니버시티 대표)은 얼마 전 '코로나19와 개혁교회론'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에서 "대역병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온라인교회가 뉴노멀 시대의 노멀 교회로 정착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지고 대전염병이 물러가도 유비쿼터스 채널, 네트워크 교회의 역할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목회사회학)는 최근 '뉴노멀의 예배'라는 제목의 기윤실 기고에서 "때로는 기존 관념을 깨야 하는 고통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교인들의 의식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송경호 기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아파 죽겠다" 보석 허가 호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89)가 최근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반사회적 집단의 수장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어 나온다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당한 불안을 초래하는 것이며 또다시 피해자들이 생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만희 사이비 교주는 청년들을 사기 표교로 유인해서 가출시키고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자"라며 "이만희 장막성전 사이비 교주는 가정주부들을 미혹해서 이혼을 조장함으로써 가정을 파탄 내게 한다"고 했다.

또 "이만희 신천지 사이비 교주는 현금 을 억지로 강요함으로써 수많은 신용 불량자를 양산시키는 자이고,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신도들에게 은혜 및 도구를 사주하고 인명부를 가짜로 정부에 제출한 자"라며 "이만희 사이비 교주는 공설 운동장을 무단 침입해 만국회의라는 사기 행사를 진행하고 법을 어긴 자이고, 신도들의 현금을 횡령하여 자신을 위해 호화 궁전, 평화의 궁전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호화생활 한 자이고 신도들의 현금을 자신의 부인 명의로 빼돌려 48개의 계좌를 만들어 32억을 횡령하고 용돈이라고

하는 자"라고 주장했다.

이울러 청원인은 "이만희 사이비 교주는 보석으로 석방되면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범죄 주도자"라며 "사이비 이만희는 보석허가가 떨어지면 곧바로 신도들을 총동원해 또다시 사기표교에 나서도록 강요할 자이고 신천지 장막성전 사이비 교주 이만희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자"라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 사이비 교주 이만희는 6만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들에게 사기 표교로 피해를 입혔고 공격한 자"라며 "사이비 교주 이만희는 반드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다. 그 증거로 법무장관 추미애 씨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만희 사이비 교주의 보석을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을 올린다"며 "정부 관계자들과 법조계 판사님들은 국민들의 바램을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만희 사이비 교주를 격리해 주시길 청원한다"고 했다.

한편 이만희 교주는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해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 (아파) 죽겠다"며 과거 허리 수술을 받은 사실 등을 언급했다.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설거주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명의 열매를 심어 배려공평케 하니 그 열매는 복음의 열매가 되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충만 세운 열매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제례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이민이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회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r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애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한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엘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애)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애)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에배 오전 11:30(청년 영애)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르려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가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서론, 신론) Systematic Theology I	Elijah Kim
Tue	7:00 PM - 9:00 PM	교리, 목회서신 Catechesis, Pastoral letter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사무엘 상, 하 Samuel 1st and 2nd	Timothy In Song
Thu	7:00 PM - 9:00 PM	현대신학 3 Modern Theology 3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예배학 Christian Worship	Jong Yong Kim
Sat	7:00 PM - 9:00 PM	리포트, 논문 Rearch & Writing	Young Joon Ko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분별력은 훈련으로 가능하다.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가 된다.
무엇보다 다른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반복 훈련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생각을 가능할 수 없고, 결국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성령 충만해야 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다.

그렇다.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라고 권면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라는 말은,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 또는 그분의 행하신 일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의미이다.

그것은 마치 부부가 서로를 깊이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과 같이, 체험적으로 소유하게 된 지식을 말한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겪어서 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바로그것이, 이 구절에서 사용된 안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는 하나님이 똑같을 수 없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리고 의로우신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한다. 그 모든 것은 우연히 행하여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보다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거룩한 경험이다.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만남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자 그리고 기도하며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자.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날 귀한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결혼에 대한 청교도의 신선한 생각들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회

하여 부부의 평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아름답게 보았고, 결혼은 모든 다른 제도의 근원이며, 원형이라고 보았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가테이커(Thomas Gataker, 1574-1654)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의 사이보다 더 가깝고, 더 완전하고, 더 필요하고, 더 다정하고, 더 즐겁고, 더 편안하고, 더 불변하고, 더 지속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책 “청교도 사상”에서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의 부부의 상관관계와 공동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명제로 정리합니다. 백스터는 부부관계를 상호 평등과 사랑과 서로 섬김의 원리 가운데서 가르쳤습니다.

첫째, 상호간의 사랑. 완전히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진실로 사랑스러운 상대를 택하라. 그리고 너의 사랑을 소멸할 경향이 있는 모든 일들을 피하라.

둘째, 서로 즐거워함. 함께 거하며 서로 즐기라. 그리고 자녀의 교육과 가정을 다스림과 세상의 일의 경영에 조력자로 신실하게 협력하라.

셋째, 상호간의 영적 조력자. 특별히 서로의 구원에 조력자가 되라. 서로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선행을 분발시키라. 죄와 모든 유혹들에 대해 서로 경고하며 도우라.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에 협력하라. 죽음의 접근에 있어 서로 준비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하라.

넷째, 지혜로운 연합과 조화. 모든 분쟁을 피하고 너희가 고칠 수 없는 서로의 약점들을 참으라. 다루기 힘든 정욕을 일으키지 말고 진정시키라. 그리고 적법한 일들에서 서로를 즐겁게 하라.

다섯째, 상호간의 순결과 정절. 부부의 순결과 정절을 지키고 질투를 일으킬 수 있는 상대에 대한 모든 부적당하고 무례한 몸가짐과 행동을 그리고 부당한 모든 질투를 피하라.

여섯째, 고난 중의 동역. 서로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을 도우라. 그 짐을 무겁게 하지 말라. 궁핍과 시련과 질병과 위험에서 서로 위로하고 부축하라. 그리고 모든 다른 외부의 위로들이 쓸모없이 될 때 거룩한 사랑과 천국의 소망과 의무 가운데 즐거운 동반자가 되라.

잠언 17장 10절

인간의 지식 습득 능력에 대해서 연구한 교육학자들은, 인간을 교육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반복 훈련 이라는 사실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교육학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인간의 반복되는 경험들은 인간의 뇌 어느 부분에 입력, 저장됨으로써, 동일한 상황에서 자동 반응하는 효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반복되는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리는, 영적인 훈련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영적인 훈련 역시, 반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꾸준히 하지 않으면, 별 힘이 없다는 것이다.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일을 생각해 보자. 꾸준히 기도하지 않으면, 꾸준히 전도하지 않으면, 할 때마다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도, 반복함으로써 훈련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는 기회

영국의 청교도가 결혼생활에 있어서 금욕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청교도는 무절제한 물질에 대한 탐욕과 난잡한 쾌락의 추구를 경계한 것이지, 부부 사랑에 관한 한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는 지금의 일부일처제의 성경적 이상을 확증하여 정착시키고, 결혼의 즐거움을 효과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였듯이 결혼이란 창조질서에 속한 것이며, 인간에게 결혼은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고귀하고 거룩한 언약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청교도는 남녀의 위계질서와 여자의 열등성을 주장한 토마스 아퀴나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거부하였습니다. 청교도는 아내란 아이를 낳고, 색욕을 피하게 해주며, 삶의 편리를 도모해주는 도구라고만 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로마 문화에 의하여 뒤틀린 성적타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부부간의 성관계를 부정적 혹은 저열한 것으로 보려는 중세의 입장을 거부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의 기록을 통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교회 안에 여권(女權) 문제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고 바울이 기록한 것은, 2천 년 전의 한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습을 말함이고,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이 총회에서 문제가 되었다.

서울 남대문교회 목사였던 김영주(金英珠)가 1934년경에 창세기의 모세 저장을 부인하는 글을 쓰자, 총회는 5인 연구위원을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연구한 후 이듬 총회에 보고하게 한 일이 있었다. 총회는 동 위원회로 하여금 김춘배 목사 여권 문제도 조사 보고토록 지시하였다.

연구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성경에 여자 교권이 전연 용허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운동이 대두하는 현 시대사조에 영합하기 위하여 성경을 시대사조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석하는 교역자들은 권징조례에 의하여 처리함이 가하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총회는 김춘배 목사로 하여금 철회를 권고하였다.

김춘배 목사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필자의 석명’(釋明)을 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기독신보』 제 977호에 게재한 ‘여권문제’란에 교회에 폐해를 끼칠 문구가 있다 하여 총회에서 논의되고 연구위원을 택하기에 이르러서 여러분의게까지 걱정을 기쳐 드리게 됨을 필자로서는 황송함과 책임의 중대함을 감(感)하고 이에 필자의 본의를 고하여 여러분의 참고에 공

(供)하려 하오니 하람(下諫)하소서. 1. 그 게재문의 본 의도가 성경을 해석하려 함이 아닙니다. 2. 우리 조선 예수교장로회에서도 벌써부터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실에 의하여 그 갖치 말한 것이올시다. 3. 그러나 그 문구가 만약 성경의 권위와 신성을 손(損)하고 교회에 폐해가 급할 염려가 있다면 책임의 중대함을 감하고 취소하기를 주저치 아니하니이다.”

그러나 석명서의 내용이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논의가 교회에 폐해가 된다면 취소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이 문제가 언젠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될 것이라는 여운을 남겼던 것이다. 결국 여성안수문제는 그로부터 두 세대(60년)가 지난 9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장로교회(통합측)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문자주의에 매달리는 견해와 그 정신을 찾는 쪽 중에서 어느 것이 바른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신생사(新生社)에서 출판한 『아빙돈(Avingdon) 단권주석』(單卷註釋)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였다. 이것은 감리교회가 선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유형기 목사의 책임하에 번역, 출판한 것인데, 그 번역자들 중에 장로교 목사들인 송창근, 채필근, 한정직 목사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당시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수였던 박형룡 박사는 그 책 내용이 장로교의 전통 신앙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교계 원로 길선주 목사와 함께 이 문제를 총회에 제기했다. 그들은 그 집필자의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임을 지적하여 장로교회 내의 침입을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번역진에 “장로교의 목사가 있는 것은 크게 유감 된 일로서 엄중한 책임 규명을 함으로 후일에 경계를 삼아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1935년 24회 총회는 길선주 목사의 의견에 따라, “신생사 발행 성경주석에 대하여는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에 위배되는 점이 많으므로 장로교회로서는 구독치 않을 것이며, 동 주석을 번역한 본 장로교 교역자에게는 소관 교회로 하여금 사실을 심사케 한 후, 그들로 하여금 번역의 시말을 기관지를 통하여 표명케 할 것”을 결정, 선포하였다.

한국 장로교회 총회는 서서히 밀려드는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을 몸소 체험하면서 1932년에 신조개정을 결의하고 그 이듬해 총회에서 12개 조의 개정된 ‘조선예수교장로회 신조’가 채택되었다. 이 신조는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되면서 발표한 신조의 근간을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의 일부가 첨가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조

의 성경에 관한 사항에서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니라.”하여 성경의 절대권위를 확립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 장로교회의 모든 교리는 성경의 절대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냐에 달려 있게 되었다. 성경은 절대적 신성불가침으로 남아 있게 되었고, 성경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곧 이단으로 정죄된다는 등식이 이때부터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향후 장로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성경의 권위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은 출교요, 존립의 지대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시대가 바뀌면서 서서히 밀려오는 자유주의 신학 즉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신학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무조건 ‘절대불가’라는 고집을 부림으로써, 신학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보수 정통에 매달려 결국 세월이 지난 후에 교파 분열이라는 비극을 가져오게 될 씨를 뿌렸다. 다양한 신학을 소개하고 그러면서도 장로교회의 정통교리를 지켜 나가는 융통성을 보이지 못했던 보수주의자들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로서는 소화해 낼 수 없는 자유주의 신학을 마구 외쳐댔던 사람들도 모두 다 같이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끼는 속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비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움
- 염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역,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햇빛레쉬, 불안초조,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땀기고, 무릎통증
- 골관절염, 테니스 엘보우
- 발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영광을 얻기까지

데살로니가후서 1:1-12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몇 차례 헌금을 해서 선교기금을 마련해 줌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교회의 믿음이 상당히 모범적이고 소망적인 교회로 성장한 것에 대해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교회를 본받으라고 자랑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 교회의 소망적인 믿음

본문에서는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라는 지시를 받고 파송 나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 실라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오른 팔과 같은 요긴한 동역자로, 선교의 협조자로 봉사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함께 했습니다. 그 후에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봉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목회자 입장에서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가 한마음으로 계속 애지중지 가꾸어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교회가 소망적이고 모범적으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그들의 수고는 넘치는 보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교회의 소망적인 믿음으로 인해 세계 여러 교회들이 본받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살후 1:3-4).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한 복음의 말씀에 데살로니가인들은 100%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살후1:10下). 그랬기에 그들의 신앙은 잘 자랄 수 있게 되었고, 같은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주안에서 형제, 자매된 상호간에 이해하고, 협조하고, 아끼고, 사랑의 교제가 뜨거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들이 애써 전달해준 복음의 말씀을 절대로 거부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즉시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서둘러 행동하는 실천신앙으로 가꾸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선포하는 말씀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제시하신 약속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연고로 무시하고, 거부하며, 불신함으로, 결국 자신의 이권야심(利權野心)의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들은 불행하게도 여러분의 불신앙이라는 벽에 부딪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와 고통, 절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

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

우리가 속해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곳은 원수 마귀가 행세하는 적진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천국의 역사를 확장시키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습시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라는 기대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남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여러 가지 혜택을 기대하고 대접받기 원하는 폐단은 무지(無知)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바로 지키는다고 받는 고통은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마침내 이기도록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으로 체험하실 것입니다.

전날에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와 같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속하신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했기에, 마귀와의 인연을 끊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허락받은 영원하고 신성한 조건을 바라보며 새 출발하는 것이 중생한 성도의 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기 전에 가졌던 직업이나 직장 중에는 중생한 성도로서 계속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음을 알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직업을 갖는 것 또한 신앙을 위해 잘 고려해야 할 일입니다.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의 주인 되었던 마귀가 그런 우리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離間)시키고 믿음을 뒤흔들어 시험 들게 하여 또다시 마귀에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완전히 마귀에 속한 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통, 고달픔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들은 생각으로는 믿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 얻어 생활하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 마귀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단절하고, 그 울무에서 벗어나서 해방과 은혜 안에 자유 할 수 있는 결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20)하셨습니다. 그 때는 예수님의 입장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 모든 조건으로 함께해 주심을 기대할 수 있기에, 믿음으로 살아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 목자를 통하여 날마다 애타게 권면 받고, 지적과 책망, 위로를 받는 과정에서 생각으로만 믿거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까지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부흥회를 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한 예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교회만이 빌립보교회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편이 어려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은혜를 받고 진리 안에서 살겠다고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사역에 힘쓰기를 원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이 세상을 사는 생활에 직접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더 나은 대책을 세워 놓으셨을 것이라는 기대지향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늘의 신성한 소망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정절을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데살로니가교회는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7절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

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 값의 보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오로지 믿음 지키려는 일념으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영적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가 괴로움을 가해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괜한 트집을 잡고 핍박을 한다 해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그 사람이 분별없이 하는 짓이기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여러분의 신앙인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특히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하루빨리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날부터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신앙인의 본분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하늘 역사에 요긴한 그릇으로 잘 쓰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만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부덕을 끼치고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예수님 앞에서 실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과정에서 육신이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오로지 하늘의 뜻을 받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믿음의 정절을 목적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하면, 그 모든 고난의 분량만큼 내 몫으로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살후 1:11-12).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에 따라 내게 돌아올 분깃이 결정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 Tel. (213)703-0240 |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든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향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안전하고, 간단하게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올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후,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돕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각 지역사회에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응답은 중요합니다. 인터넷, 전화, 우편 또는 센서스 인구 조사원을 통해 응답하세요.

2020CENSUS.GOV/ko
또는 전화 844-392-2020으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물란> (下)

<물란>, 기독교 문화에서 멀어진 디즈니의 명확한 한계

◆디즈니의 문화가치: 시대에 뒤쳐지는 디즈니의 중심가치 표현방식

디즈니 실사화 영화 <물란>은 북미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해 디즈니 플러스로 직행해서 개봉해버린 탓에 정확한 흥행성적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월드와이드 흥행성적을 보면 개봉 첫 주 성적이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기대했던 중국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지 않다.

디즈니 그룹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의 창사 년도는 1923년으로, 무려 9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디어 콘텐츠 회사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부침과 굴곡이 있었지만, 오리지널 디즈니 콘텐츠들은 시대가 변할 때마다 연출과 표현 양식에 적절한 변화를 가하며 미국과 전세계 어린이들의 시선을 붙잡아 두곤 했다.

무엇보다 1989년 <인어공주>를 필두로 약 10년간 지속된 디즈니 르네상스 시기는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 내부의 변화 의지와 창의성이 가장 돋보였던 시절로 평가된다.

그러나 디즈니 르네상스가 끝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오리지널 디즈니 콘텐츠와 더불어 디즈니 계열 영화-애니메이션 프랜차이즈 전체 콘텐츠의 질, 특히 서사 수준은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1세기에 들어와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제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로 경영 혁신과 과감한 M&A 덕분이지, 디즈니 콘텐츠 자체의 창의성과 혁신성 때문은 아니다. 디즈니플러스의 성공 역시 치밀한 경영전략과 플랫폼 기술의 혁신 덕분이지, 콘텐츠 자체가 일궈낸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리지널 디즈니 콘텐츠가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합병한 프랜차이즈 콘텐츠의 수준마저 함께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창업자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서사 및 캐릭터 창안 방식이 디즈니 전체의 콘텐츠 제작 전통으로 굳어져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의 외형과 표현 방식은 크게 변했지만, 디즈니의 서사 및 캐릭터 설정 공식은 월트 디즈니가 살아있을 당시와 크게 달라진 바 없다. 20세기 공식을 가지고 21세기 문화예술 현실에 적용하려 하다 보니, 시대에 뒤쳐진 서사와 캐릭터 설정이 난무하는 것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전반을 관통

하는 중심 가치는 가족, 어린이, 인간관계의 오페라적 조화, 그리고 권선징악이다. 우리는 이를 디즈니의 문화가치(die Kulturwerte)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가치란 신칸트주의 사상이하인리히 리케르트가 창안한 용어로, 어떤 가치들이 형이상학적 실재에까지 미치지 않지만, 여전히 인간 현실에서는 초월적이라 여겨지는 그런 선험적 가치들, 예를 들어 진리, 선함, 아름다움, 성스러움, 행복 등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인간의 자연적 삶의 정황과는 구별되는 문화적 삶의 정황이 인류 전반에 지당하고 숭고하게 보이는 어떤 선험적, 객관적 가치들을 부여하는데 이것이 문화가치라는 것이다.

월트 디즈니가 표방한 문화가치는 20세기 미국을 표본으로 삼는 서구 자본주의 중산층의 핵심 가치와 상당 부분 부합한다.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은 이 가치관을 어린이들 시선에 맞춰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는데 주력해 왔고, 이 때문에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실사영화 전반에는 항상 답답하게 느껴지는 특유의 단순성이 엿보이곤 했다.

서사의 흐름은 '필연적'이고, 캐릭터의 성격은 '전형적'이다. 모든 디즈니 작품에는 제대로 된 서사적 반전이 없고, 다중적 성격을 가진 현실적 캐릭터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월트 디즈니 캐릭터 가운데 선악이 절묘하게 뒤섞인 현실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캐릭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디즈니 캐릭터들은 어린이들의 눈높이 수준에 맞게, 선역과 악역이 확실하게 구분된다.

디즈니 콘텐츠 전반에서 영화 <조커>의 주인공 조커(호아킨 피닉스)라든가, <기생충>의 기택 가족이나, <도스토예프스키 소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같은 캐릭터를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명료한 서사 구조 및 캐릭터 설정 공식을 가지고 포스트 구조주의적 인간이해가 문화예술계 전체를 지배하는 오늘날의 현실에 도전하니, 영화 관객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디즈니 콘텐츠는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지만, 보다 개연성 있고 현실적인 서사에서 카타르시스를 얻으려는 이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그저 '오늘거리는 동화' 수준의 작품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영화 <물란>.

◆디즈니의 문화배경: 기독교적 문화배경에서 이탈한 디즈니의 표류

21세기 들어와서 디즈니 그룹 전체가 저지른 또 하나의 실수는, 그 단순명료한 선악 구분의 서사 구조 속에 정치적 올바름 운동 이념을 끌고 들어왔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와 디즈니 콘텐츠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넷플릭스는 애초 독립영화, 예술영화 제작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면서 정치적 올바름 이념을 나름 다채롭게, 개연적으로 풀어낼 역량을 확보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 사상에 깊이 공감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서사를 풀어내고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상당히 세련된 면모를 보인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한다.

반면 디즈니는 뛰어난 연출력과 표현력을 갖췄지만, 단순하고 이원적인 서사 구조를 고집한다. 대역처럼 백인우월주의를 허물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작품 내적인 모순들을 극대화시켰다.

백인 캐릭터를 기용해야만 공감 가는 전통 서구 서사에 유색 인종을 캐스팅하거나, 가정의 화목함이 라는 가치를 더없이 강조하면서 전통적 가부장제를 파괴하는 동성애 사상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역지사리 표류하는 모습이 자주 확인된다.

<물란>은 디즈니 그룹 전체가 안고 있던 이런 문제적 요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작품이라 할 수 있

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유연족 마녀 시아니앙(공리 분)이라는 괴상한 캐릭터를 통해 드러난다.

중국 본토에 쳐들어오던 유연족 침입자들의 선봉장 시아니앙은 물란과의 조우를 통해 납득되지 않는 방식으로 물란을 감싸다가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다.

한쪽의 용맹과 정의심에 매료되어 한쪽에게 복속된 오랑캐라는 이 캐릭터 설정은, 오로지 중국의 중화 사상에 아부하려는 노골적인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은 선악이 애초 정해져 있는 캐릭터들을 다루는데 익숙해서, 나름 다중적인 캐릭터를 구축해 보려고 해도 전혀 납득되지 않는 방식으로 등장인물들을 헛되이 소비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번 <물란>의 시아니앙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물란>의 참담한 작품성을 보면서 느낀 바는, 서구인들의 문화예술은 그 뿌리가 되는 기독교적 서사와 이미지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동감, 창의성, 그리고 개연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다.

디즈니의 서구적 중심가치들은 비록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라도, 가정, 어린이, 공동체, 그리고 선(善)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서구인들의 인간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물론 디즈니는 자기 작품의 중심 가치를 산출한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서사 전반과 거리를 두다가, 답답하고 단편적인 서사와 캐릭터 구축만 남발하는 한계를 내보이고 말았다.

이런 한계는 디즈니 사후(死後) 디즈니 르네상스 시기의 표현력 혁신에 잠시 가려져 있었지만, 최근 디

즈니 작품들의 작품성 저하를 통해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물란>은 아예 기독교 신앙과 상극인 공산주의, 반종교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중화사상을 옹호하는 중국 정부의 취향에 맞춰 제작한 작품인 까닭에 기독교적 가치와 더욱 멀어졌고, 디즈니가 원래 추구하던 인간관계의 오페라적 조화와 권선징악의 가치마저도 흐려버리고 말았다.

중화(中華)에 패배하고 복속하는 오랑캐라는 서사 요소는 이미 인간관계의 평등한 조화가 아닌 패권적 상하관계를 정당화하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 사상에 근거해 인종적 다원주의와 포용성을 추구한다면, 정작 자민족 외 소수민족을 압제하고 주변국을 침탈하려는 중국 정부의 제국주의 행태를 옹호하고 있다.

효과적 경영전략과 M&A, 그리고 온라인-모바일 기술 혁신에 기댄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제국의 성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디즈니 콘텐츠 자체의 서사, 캐릭터, 예술성, 작품성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한, 경영전략과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성세는 오래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려 꽃이 좋아지고 열매가 많아진다." 용비어천가의 격언을 따르자면, 현재 디즈니의 콘텐츠 제작 상황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익을 좇아 그 뿌리로부터 멀어지며 표류하는 까닭에, 결국은 말라비틀어질 형국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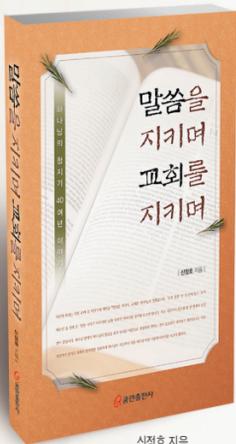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일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명확한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95년 말인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말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연교회 담임목사로 사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고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회 최우수상, 매년 푸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회 대상, 찬양평론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일치장,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원봉사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회정신과 아름다운 순명에서 나오는 그의 절실 열정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신정호 목사

380면 / 15,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에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혁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학교, 장로회신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주노회장, 총회 권-농어촌 부장, 회의장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회 논설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교 교역원, 한신대학교 이사, 한국노회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 1) Covid-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는데 애가 집중도 못하는거 같고, 관리가 잘 될까요?
- 2)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중요한 시기인데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3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8월 10일
개 학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